

油價 하락 英國 경제에도 활력을 주고 있다

최 근의 급격한 원유가격의 하락은, 세계경제의 확대기조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日本과 美國, 대부분의 유럽諸國의 경제 성장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산유국인 英國의 경우, 사정은 좀 복잡하다. 전체로 보면, 英國 경제도 역시 다음에서 서술하는 여러 요인으로부터 油價 하락에 따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① 油價 하락으로 석유통화인 파운드貨의 가치도 하락한다. 파운드貨의 가치 하락은 원자재 비용의 저하와 더불어 英國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기업수익의 순조로운 증대를 보장할 것이다.

② 현재, 성장의 주역인 개인 소비는 인플레이의 진정으로 인하여 활발해 질 것이다.

③ 이러한 油價 하락의 장점을 충분히 받아 들이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금융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진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가는, 그 여지를 확대시키는 의미로써, 하나의 열쇠가 된다.

「제조업을 再生시키기 위해 대담하게 손을 쓰지 않는 한, 英國 경제는 北海 원유의 고갈과 더불어 쇠퇴한다.」

지난 가을, 英國 상원 위원회가 발표했던 보고서는 英國 내에 커다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北海 원유의 收入에 의존하는 英國 경제의 자세를 이 보고서는 수정되어야 할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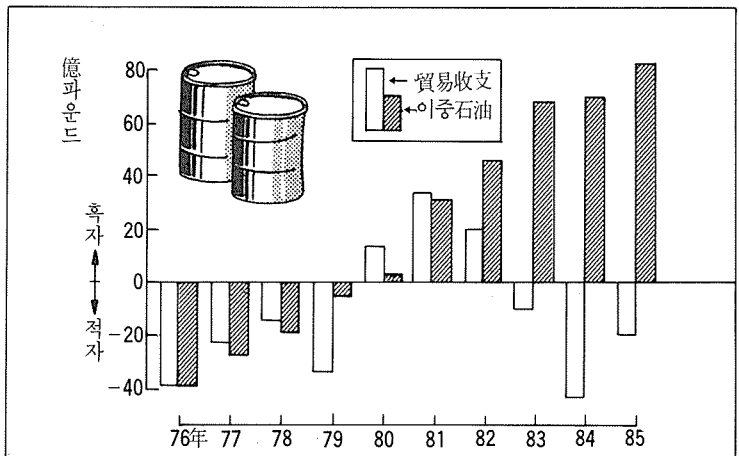
여기서 문제로 되었던 것은, 北海 원유의 생산량이 작년 가을에 피크로 되어, 그것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이 금세기 말에 걸쳐 감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었다. 그후 생산량이 격감했다는 사실은 물론 아니다. 적어도 수년간 생산량은 높은 수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대

부분의 견해이다.

그러나, 생산량 격감과 겹쳐오는 같은 효과를 갖는 현상이 금년에 들어 발생했다. 原油 가격의 폭락이 그것이다. 작년 가을, 北海 원유의 대표유종인 브렌트油는 한때 배럴당 30 달러수준의 高價格을 유지했으나, 그것이 하락의 길을 걸어, 3월 전반에는 무려 13~14 달러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단순히 보면, 생산량이 반감한 것과 같은 결과로 된 것이다.

『앞으로, 英國의 에너지상이 OP-EC(石油輸出國機構)의 의장으로 될 지도 모른다.』 - 英國이 北海 유전의

英國의 貿易收支와 石油收支



본격적인 상업생산을 개시했던 1975년 월슨수상(당시)은 이런 농담을 하여 국민들을 기쁘게 했다. 십여년간 석유생산량은 자꾸 증가하여, 英國 경제내에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5년 수출총액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6%로 英國의 수출 품목 중에서 두드러지게 높아졌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76년 당시는 무역수지와 석유수지의 적자 폭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석유輸入분만큼 무역수지가 적자로 되었으나, 현재는 석유수지의 흑자가 무역수지를 지탱하는 큰 기둥으로 되어 있다.

▲광공업생산에서 에너지관련생산이 차지하는 비율(84년)은 28.2%, 이중 원유·천연가스생산은 17.6%, 원유정제는 1.4%이다.

▲석유稅와 로열티등 석유관련수입이 국가歲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5년도 예산에서 9.0%.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財政再建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대단하다.

油價하락으로 성장률 상승

이렇게 보면, 油價하락이 英國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석유공급을 거의 輸入에 의존하는 日本과 여타 유럽諸國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유가격이 반감한 지금, 英國의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지고 광공업생산은 감소, 재정재건에 향해지는 노력은 좌절된다는 두려움이 있다. 油價하락을 경제확대로의 「순풍」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다수의 석유수입국과는 사정이 다른 것이다.

10% 原油價格하락이 英國經濟에 미치는 영향

(英大藏省試算, 豫測値는 原油價格不變의 경우와 비교한 增減率·額)

	實質國內 總生産 (%)	消費者物 價上昇率 (%)	파운드 시 세 (%)	相對賃金 코스트 (%)	北海原 油收入 (10億파운드)	財政赤字 (10億 파운드)	短期 金利 (%)
1年째	0.1	△0.1	△2.2	△2.0	△0.7	0.7	0.3
2年째	0.2	0.2	△1.7	△1.1	△1.1	1.1	0.4
3年째	0.1	0.1	△1.5	△0.7	△1.2	1.0	0.4
4年째	0.0	0.0	△1.5	△0.7	△1.1	1.1	0.4
5年째	0.0	△0.1	△1.2	△0.7	△1.1	1.3	0.4

그러나 北海원유의 收入이 마찬가지로 반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생산량 반감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우와, 가격이 50% 하락되어 초래되는 경우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원유수입 감소는 단지 경제신장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요인으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원유가격 하락에 의해서 대다수의 유럽諸國이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을 英國도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면, 장점·단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실마리가 될 몇가지 분석결과가 이미 발표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큰차이는 없지만 여기서는, 表와 같이 英國 대장성이 작년 실시했던 모델분석을 인용하기로 한다.

그것에 의하면, 4-6월에 원유가격이 10% 하락한 경우, 실질GDP(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은 원유가격이 변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1년째는 0.1%, 2년째는 0.2%, 3년째는 0.1% 각기 상승한다. 다른 선진국 정도로 큰폭은 아니지만 油價하락은 英國의 경우에도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해에 따라 높낮이는 있으나, 전체로 볼때는 현재의 안정경향을 유지한다는 견해이다. 北海원유의 收入은 당연히 감소하여 재정적자는 늘어나지만, 그 규모는 그다지 큰폭은 아니다. 결국 그점에서 부각되는 英國경제의 모습은 원유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보다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된다.

두가지 경로 경제에 활성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 油價하락의 파급효과는 크게 구별하면, 다음의 2가지 경로로 英國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油價하락에 의해 석유통화인 파운드貨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사실 최근의 달러하락·유럽통화 강세의 영향으로, 현저하지는 않지만, 파운드貨의 가치하락은 계속되고 있다. 국별 수출비율을 감안했던 실효환율은 연초 80정도의 수준에서 현재는 73대까지 떨어졌다. 달러에 대한 상승폭 이상으로, 유럽통화와 円貨에 대한 하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파운드貨의 가치하락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한편으로, 원유와 1차산품 시황의 軟化는 기업 생산

비용을 큰 폭으로 경감시킨다. 최근 발표되었던 2월달 기업의 연료·원재료 비용은 전년대비 약 10% 감소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조사기관은 기업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油價하락에 따른 선진국 경제성장의 가속, 세계무역의 확대가 초래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파운드貨의 가치하락에 의한 경쟁력 강화에 편승해 수출이 증가하여, 석유수출의 감소분을 어느 정도는 메운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가세입의 면에서 보면, 기업수익의 향상은 법인세입의 증가를 초래하여, 석유관련수입이 감소된 것을 부분적으로 보충할 것이다.

둘째는, 원유價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하락이다. 현재, 5% 수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반기에는 3%선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중기적으로는 계속되는 파운드貨의 약세로 수입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으로도 되지만 전체로서 물가의 진정경향은 강해질 지언정 붕괴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 가계의 실질소득은 증대하여, 개인소비는 확대경향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미 英國에서는 종래의 수출주도형 경기회복에서 개인소비 주도형으로 성장의 주역이 바뀌고 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의 상업전쟁은 오래간만에 활기찬 경기상태를 보여주었으며 소매업은 좋은 결산을 계속했다. 油價하락이 이런 개인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이다.

「油價하락은 정권유지를 목표로 하는 대처정권에 있어서 구세주가 될

● 原油價하락은 파운드貨 가치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국제경쟁력 강화와 가계 실질소득 증대를 초래●

것이다.」-英國의 대형증권회사인 펠립스·안도·도류社의 조사부는 최근, 대부분의 불안과는 반대로 이러한 예측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차기 총선거는 87년에 실시될 공산이 크다. 그전에 油價 하락이라는 구세주로 경제는 호전되어 호경기 속에서 여당은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다.

장점확대, 금융완화로

유리한 예측기관인 런던·비즈니스·스쿨도 금년 경제성장율을 2.4%, 내년은 3.9%로 보는 분명한 전망을 발표하였다. CBI(영국산업연맹)의 조사도 또한 油價하락으로 기업마인드가 호전해 있다는 사실을 뒷페이지에 붙였다. 이처럼 英國에는 최근 원유가 하락에 의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英國이 이상과 같은 油價하락의 장점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타 선진국 이상으로 주의깊은 機動的인 정책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환정책의 면에서, 油價하락에 따른 파운드貨의 가치하락을 정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여

얻을 수 있는가가 최대의 주목점이다.

대처정권은 지금까지 금리수준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파운드貨 약세에 제동을 걸어왔다. 인플레이션을 최대의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원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재, 그 범위는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파운드貨세를 고집하여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油價하락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矯角殺牛의 뽀를 범하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日, 美, 西獨에 의한 협조금리 인하가 최근에 실현됐던 것은 英國경제에 대단히 의미가 깊다. 선진국의 금리인하는 英國정책당국의 금융정책 완화의 여지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英國경제 최대의 아킬레스健인 고실업은 어느 예측에 의해서도, 호전될 전망이 밝지 않다.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다. 原油價 하락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내느냐 어떠냐가 英國경제를 재생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다. □

〈日本經濟新聞 86.3/19〉